

현대 패션쇼에 나타난 퍼포먼스적 요소

- 1990년 이후 파리, 런던 컬렉션을 중심으로 -

장 안 화 . 박 민 여*

경희대학교 대학원 의상학과 박사과정, 경희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Performance as a factor in the Contemporary Fashion Show

- Focus on the Paris and London collections Since the 1990s -

Anhua Chang . Meegnee Park*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Kyunghee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Kyunghee University*

(2001. 2. 23 투고)

ABSTRACT

Since the beginning of the 90's, Fashion shows appear to be a type of performance form of art combining with other areas to visually entertain the viewers. This can be explained by the modern tendency to escape from society which requires formality and complicated lifestyles.

Fashion shows take place in a scene influenced by the idea of post-modernism which redefines the definition of space. A church, old factory, unoccupied ground, subway stations, or even place like a waste disposal are used as a setting.

The stage set is no longer the T shape run way and the proscenium arch has disappeared. The gap between audience and stage has diminished and theatrical element is added to the fashion performance by using viewers living and working environments as setting of the show. The human relation with machine based on the cutting edge technology such as the stage automation, robots and mist making sprinkler system introduces new elements with spontaneity and detailed planning in the stage performance.

Music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in attracting viewers. The sound track covers house music to techno music. Instead of music being abstract, folks orchestral music, choirs, piano, even live concert performed by pop artist provide the liveliness of the fashion show.

And the catwalk itself is a performance. Model needs to be well trained as the capable talent who can handle sensitive gestures, facial expressions, dancing and choreography. The improvisational interaction between audience and model lead to audience participation. Models now range from pop star, ordinary people, handicapped people, to elderly and so on.

John Galliano introduced the theatrical factors for the fashion show and Alexander McQueen approached the fashion show as the visual art of communication. Hussein Chalayan utilized high technology showing futurism as if in a magic show. Today the Fashion show tends to be a total performance which includes audience participation, impromptu, and that break the limitation that fashion shows previously had. This will lead the fashion industry in opening new horizon of its own.

Key words : Fashion show(패션쇼), Performance(퍼포먼스), Run way(런웨이),
Collection(컬렉션), Prêt-à-porter(프레타 포르테), Catwalk(캐트워크)

I. 서론

1. 연구목적

오늘날을 살아가는 대중들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늘 새로운 것을 갈망하고 있다. 의복은 입는다는 기본적인 목적 외에 보고 즐기는 문화로 자리잡아 가고 있어 더 이상 정형화된 패션쇼로는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지 못한다. 관객의 관심을 사로잡고 판매촉진을 위한 패션쇼는 소비자와 패션업체가 공감하는 장으로써 1990년대 중반 이후 패션쇼는 장르의 구별에 의미를 두지 않고 각 분야가 자연스럽게 넘나들며 그 독자성을 잃지 않는다는 총체예술의 구현으로 다양한 장소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과거에는 패션쇼 장소로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제3의 장소-교회, 창고, 공장의 빈터, 지하철역사, 간이 텐트, 수영장, 선착장 등-가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장소의 확장개념은 관객들로 하여금 친근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관객참여의 장이 되고 높게 느껴지던 문턱은 생활의 일부로 인식하게 한다.

또한 패션쇼 연출은 주제를 가지고 연극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우리의 일상이 도입되어지면서 퍼포먼스적인 요소를 띤다. 모델들의 캐트워크도 의상에 표정연기, 메이크업, 헤어 등 다른 장르와의 접목이 이미 시도되고 있다.

모델들은 천장에서 내리는 눈, 비(인공)등을 맞으면서 무대 위를 활보한다. 또한 첨단과학의 도입으로 무대의 움직임과 리모트콘트롤에 의해 해체되어지는 의상은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한 패션쇼의 퍼포먼스적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정의 고급스런 장소에서 제3의 장소(패션쇼장으로 잘 쓰여지지 않았던 장소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중심의 장소로 전환된 확장개념)가 부각된 것은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새로움이 넘쳐나는 '참여의 장'으로 패션쇼가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내외 패션쇼에 관한 연구, 역사나 정보에 관한 중간 매개체로서의 패션쇼를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고 패션쇼를 미술의 한 영역인 퍼포먼스와 관련하여 연구한 것은 거의 없었다. 또한 90년대 중반이후 패션쇼의 형태가 현저하게 퍼포먼스적 양상을 띠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파생되는 마케팅효과는 대단한 것이다. 세계4대 콜렉션으로 정평이 나 있는 파리, 런던, 밀라노, 뉴욕콜렉션은 디자이너들의 새로운 콜렉션발표가 우선이지만 문화의 장으로써 패션쇼를 한계를 넓힌 것도 사실이다. 관객들에게는 특정인을 위한 패션쇼가 아니라 일반 대중도 참여할 수 있다는 인식을 주므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계패션에 근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아직도 패션쇼는 다른 공연예술에 비해 덜 대중적이고 타 장르와의 접목으로 인한 기대효과가 크므로 총체예술로서 자리 매김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려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으며 부가적 목적으로 국내 패션쇼 업체의 질적 향상-즉, 전문가육성, 효율적인 쇼 기획 전략, 정부의 시책(재정적 지원)-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 문제로는 1990년대 중반이후 파리컬렉션의 존 갈리아노, 런던컬렉션의 알렉산더 매퀸, 후세인 살라얀의 패션쇼를 장소, 무대장치, 배

경음악, 캣워크와 연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1) 연구방법

패션쇼(컬렉션)와 퍼포먼스에 관한 이론적 배경은 관련 참고서적 및 전문패션잡지 기사, 선행연구 논문 등의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였고 패션쇼에 나타난 퍼포먼스적 요소는 전문패션잡지 기사 및 디자이너들의 컬렉션 사진자료와 실증적 자료로 컬렉션 비디오 테이프를 분석하였다.

2) 연구범위

풍부한 불거리를 제공하며 총체예술로서 획기적인 패션쇼로 주목받고 있는 1990년 이후 파리, 런던 컬렉션 중 존 갈리아노, 알렉산더 매퀸, 후세인 살라만의 패션쇼(프레타 포르테컬렉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90년대 이전의 정형화된 패션쇼와는 장소, 무대장치, 배경음악 그리고 캣워크등 전체적인 쇼 연출 면에서 비교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3. 용어정의

1) 패션쇼¹⁾ 패션상품의 판매증진을 위하여 모델에게 옷을 입혀 하나의 주제, 프로그램, 음악, 조연자, 대본 등에 따라 상품을 형식적으로 디스플레이 하는 것 또는 계절의 신상품을 보여주거나 디자이너의 특정 스타일을 형식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2) 컬렉션²⁾ 하이 패션의 주문 복을 하는 오트쿠튀르 디자이너들의 창작작품이나 프레타 포르테에 참여하는 메이커나 디자이너가 시즌에 앞서서 발표하는 작품들 또는 발표회를 말하며 여러 이미지와 테마로 이루어진 것을 모았다는 의미가 내포되었다.

3) 오트쿠튀르(Haute-cou·ture)³⁾ 프랑스어로 직역하면 '우수한 봉제 작업'을 뜻하나 오늘날 고급 주문 복을 전문으로 하는 '고급 의상 점'이란 의미와 일반 주문 복이 아닌 '고급 주문 복'이란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

4) 프레타 포르테(Prêt-à-Porter)⁴⁾ 프랑스어로

'바로 입을 수 있도록 준비된 옷'이란 의미로 일반적으로 고급 기성복을 지칭한다.

5) 퍼포먼스(performance art)⁵⁾ 예술가 개인이나 집단이 신체 또는 여타의 매체를 사용하여 작업이 의미하는 바를 보여주거나 시각예술, 음악, 연극, 무용, 건축, 시, 영화, 비디오(이를 공연예술 이라고도 함)등 모든 장르가 포함되고 이들은 각종 매체와 유기적인 통합을 이루어 총체예술을 지향하는 실연의 성격을 지닌다.

6) 종합예술⁶⁾ 모든 예술은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고 모든 요소의 효과적 상호작용을 이해함으로써 예술은 존재한다.

7) 총체예술⁷⁾ 예술 각 장르의 속성이 한자리에 어우러지면서 각기 고유한 특성을 잃지 않는다.

II. 패션쇼

1. 패션쇼의 개념

Winter & Stanley Goodman은 "패션쇼란 패션 판매촉진을 위한 모든 활동 중에서 가장 극적이고 압도적인 것으로 생동감 있고 움직이는 형태로 상품을 보여주는 촉진적 매개체"라고 정의하고 있다.⁸⁾ 새로운 시즌에 앞서서 패션경향을 전달하는 복장 및 그 밖의 제품을 모델이 착용하고 쇼 형식으로 진행되며 판매촉진의 수단으로 관객에게 유행 경향 등을 제시하고 상품을 소개하는 것이다. 근래에는 패션쇼, 텔레비전, 비디오테이프, 필름 등을 매체로 유행경향이 이루어진다.

2. 패션쇼의 태동 및 시대적 변천

14c초 베니스에서는 카톨릭 기념일인 8월15일 성모 승천 일에 연례행사의 일환으로 사람크기의 인형을 이용하여 다가오는 해의 유행될 의상을 전시했다.⁹⁾

1911년 미국의 기성복산업이 대량생산 기술을 도입하면서 기성복메이커와 백화점이 정규패션쇼를 개최하였다. 대규모 패션쇼는 1914년 8월18일 처음으로 '시카고 춘추복 쇼'가 개최되었고 1931년 2월

뉴욕에서 패션그룹이 결성되어 유행경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정기적인 패션쇼를 개최하였다.¹⁰⁾ 1943년에 Coty American Fashion Critics Awards 쇼가 1950년대는 음향과 조명기술의 발달로 슬라이드필름 혹은 영화의 화면이 패션쇼의 배경으로¹¹⁾ 사용되었고 1961년 3월에는 파리 프레타 포르테가 시작되었다. 1966년 William Claxton의 첫 작품은 Rudi Gernreich의 하이 패션을 담은 [Basic Black]으로 패션영화를 제작하기 시작하였다.¹²⁾

3. 패션쇼의 유형

주최자, 개최목적, 규모, 관객대상, 구성방식에 의한 유형으로 분리되는데 여기서는 Diehl의 구성방식에 의한 패션퍼레이드와 극화 쇼(Dramatized Show)를 살펴보기로 한다.¹³⁾ 극화 쇼는 오락프로그램, 특수무대장치, 음악, 무용, 서커스 등이 패션쇼에 도입되어 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객에게 전달하고 유행의 중요한 포인트를 강조 하므로서 뚜렷한 인상을 남기게 되며, 오락적인 효과로 인해 관객이 패션을 즐기게 된다.

90년대 이후의 파리와 런던 컬렉션에서 발표되는 일부 디자이너들의 패션쇼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극화 쇼에 가까우며 총체예술화 되고 있다. 컨셉에 맞게 장소를 선택하고 무대장치, 배경 음악 등을 선정하여 최대의 효과를 얻어 최고의 패션쇼가 되도록 한다.

Ⅲ. 퍼포먼스

1. 퍼포먼스의 개념

기존예술형식의 전복과 새로운 형식에 대한 탐구로 실험적인 경향을 띠며 시각예술, 음악, 연극, 무용, 시, 영화, 비디오 등 모든 장르를 포함하며 이들은 각종 매체와 유기적인 통합을 이루어 총체예술을 지향하는 실연의 성격을 지닌다. 포괄적으로는 해프닝, 보디아트, 이벤트, 라이브 아트 등을 말하며 60년대를 해프닝, 70년대를 이벤트, 80년대를 퍼포먼스라 하였다. 퍼포먼스는 뚜렷한 장르가 아니면

서 각 장르의 형식을 자유롭게 결합하는 매체이다.¹⁴⁾

2. 퍼포먼스의 태동 및 역사

퍼포먼스는 20세기초 다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우연과 즉흥, 조롱과 풍자를 통해 기성의 가치를 전복하고자 했으며 러시아의 구성주의자들은 혁명성을 강조하면서 실외로의 공간확장 개념을 가져왔다. 초현실주의자들의 퍼포먼스는 부조리연극으로 나타났고 바우하우스는 예술과 과학의 접맥을 시도하였고 극장을 행위와 실험의 장으로 삼았다.

해프닝이란 기존의 예술개념을 부정하는 복합매체(형식)와 비결정성(내용)에 입각한 참여예술로 1952년 블랙 마운틴대의 John Cage, Mus Cunningham, Robert Laucenberg와의 공연이 전신으로 유럽 쪽의 해프닝을 플럭서스라 하여 디 히긴즈, 조지 브래히트, 요셉 보이스 등이 주로 활동하였으며 미국 쪽은 뉴욕 해프닝이라 부르며 엘런 카프로, 알 랜슨 등으로 다소 느슨한 성격을 띄었으며 길거리가 무대였다. 해프닝의 효시는 1959년 10월 뉴욕의 루벤 화랑에서 엘런 카프로우가 [18 Happenings in Six Parts]로 공연한 것이며 적극적인 관객참여가 돋보였다. 독일 등은 음악적 해프닝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백남준, 디 히긴즈 등이 활동하였다.¹⁵⁾

70년대 이후는 60년대의 반전태도와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행동주의 미술양식으로 나타났으며 다원주의적인 양상을 띠어 포스트 모더니즘적 상황을 산출하였다.

70년대 초의 퍼포먼스는 개념예술의 태동과 밀접하며 70년대 이후는 인간의 신체를 주요 표현 매체로 삼는 부류와 오락적 성격의 대중 Rock그룹의 형태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회화, 설치, 방송매체, 컴퓨터나 신디 사izer 등의 복합매체로 자연물이나 인공매체가 함께 시도되었다.

3. 퍼포먼스의 일반적 특성

퍼포먼스의 구조는 주제와 객체의 분리가 초극되고 주객의 상호 합일적인 만남이 어우러진다. 또한

공연예술에서의 프로시니엄 아치는 퍼포먼스에 이르러서는 제거되고 관객참여가 중요시된다. 원시적인 제의와 축제에 연원을 둔 마당성과 현장성이 강조되고 관객참여, 즉흥성과 우연성, 계획성 등을 특징으로 한다.

IV. 1990년 중반 이후 파리·런던 컬렉션에 나타난 퍼포먼스적 요소

이 연구는 매 시즌마다 발표되는 컬렉션 중 퍼포먼스적 요소가 비교적 강한 존 갈리아노, 알렉산더 매킨, 후세인 살라얀의 쇼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존 갈리아노 컬렉션

1980년 중반부터 모습을 비친 존 갈리아노의 패션쇼는 로맨틱하고 환상적인 토탈 코디네이션이 떠오른다. 그의 창조성은 엔틱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자신도 로맨틱하며 이것이 자신의 옷 속에서 느껴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¹⁶⁾. 그의 컬렉션이 섹시하고 로맨틱한 이유는 천부적인 바이어스 커팅 감각이 바디 라인을 환상적으로 표현하고 연극과 같은 무대장치와 퍼포먼스 같은 패션쇼연출 때문이다. 그의 패션쇼 장소로는 개인 메종이나 호텔, 박물관 등을 빌려 쇼의 테마에 맞춰 연출하는가 하면 버려진 공장, 창고와 같은 독특한 장소를 이용하여 장소의 확장은 물론 호기심을 유발시킨다. 그의 쇼는 자유로운 상상력과 유머가 동원된 재미있는 연극 같은 쇼라 할 수 있다.

97 S/S 파리컬렉션에서 그는 포도주를 판매하는 창고에서 댄서와 집시 악사들을 동원하여 집시 무드로 무대를 가득 채웠다. 공장 바깥은 집시들을 불러들여 자연스런 집시 촌을 형성하여 관객들은 집시 무드에 취한 채 쇼를 감상하게 된다¹⁷⁾. 무대는 관객과 같은 층으로 무대와 객석이라는 형식적인 틀을 깨고 가운데 좁은 통로를 두고 양쪽에 앉는다. 무대 위엔 지렛대나 지구본 등의 오브제를 설치하고 바닥엔 포도주 통이나 지푸라기 등이 흐트러져 있다. 관객들은 보다 가까이에서 모델을 감상할 수

있어 더 친근감을 느끼며 프로시니엄 아치가 제거된 무대는 높았던 무대의 경계를 허물었다.

의상은 섹시하고 여성적인 무드를 자아냈으며 포도주 창고라는 로맨틱한 매개물을 통해 드라마틱한 느낌을 주었다. White, Red의 bi-color 패턴 물은 민속적인 모티브로, 라이브 민속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춤추고 너세적인 포즈를 취하는 모델들과 환상적으로 어울렸다.

피날레에서 집시 연주자들의 연주, 곡예와 흥겨운 춤이 모델들과 함께 어우러졌으며 관객들은 이 불법적 관조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동참하며 즐거워하였다. 배경음악은 쇼의 부분으로도 그 역할이 대단하지만 관객을 동시에 하나로 연결하는 힘도 가지고 있다.

98 S/S 파리컬렉션에서 화려한 여자의 방으로 연출한다. 이번 무대장치는 금장식 기둥의 침대와 그 양옆에 금조각상과 석고상이 있다. 침대 위에는 관객 같아 보이는 남녀가 걸터앉아 있는데 이는 퍼포먼스의 계획성에 해당된다.<사진1> 침대 옆에는 화장대, 카우치가 있고 바닥엔 호화로운 카펫이 자리하고 있으며 호사스런 가구와 소품을 배치시켜 화려하고 로맨틱한 무드를 연출하였다. 이 무대 역시 일상의 방을 무대로 옮겨 놓은 예로써 연극과 패션쇼라는 장르가 접목된 것이다.

의상은 칼라풀하고 화려하며 실루엣은 타이트하



<사진1> John Galliano, 98s/s. Paris Collection Video Tape

고 바디의 윤곽선을 그대로 드러내주며 화려한 소재들과 환상적인 조화를 이룬다. 모델들은 침대로 다가가 앉아 있던 남녀에게 인사나 얘기, 악수 등을 한다. 여기서 침대의 남녀는 관객참여의 일환이거

나 관객(인간)도 오브제로서 설치할 수 있다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관객은 관조적인 입장뿐만 아니라 모델의 이름도 부르고 환호하고 모델은 관객을 향해 인사도 하고 미소로 답을 하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내면서 관객참여를 유도한다. 관객의 일시적인 반응에 따른 일회성을 유발시켰으며 어느 사고장을 옮겨 놓은 듯한, 의상이 가미된 모델을 연극배우로 분한 지극히 연극적인 패션쇼라 할 수 있다. 모델들의 표정연기와 유희적인 포즈는 기존의 캣워크가 아니라 연극에서의 동작에 다름 아니다. 쇼의 장소는 예전의 화려했던 파리 살롱 가의 채취가 그대로 묻어난다.

2. 알렉산더 매퀸 콜렉션

알렉산더 매퀸은 92년 처음 자신의 컬렉션 발표를 통해 브랜드를 시작하였다. 그의 컬렉션은 독특한 장소와 재미있는 연출로 유명한데 의상은 물론 이벤트의 드라마틱한 주변에도 포커스를 맞춘다. 십자가가 있는 성당에서 상반신 노출을 하는가 하면 영당이 반쯤 노출되고 모델들이 기이한 분위기로 기존의 미의 관점으로는 해석하기 모호한 채로 등장한다.



<사진 2> Alexander McQueen, 98s/s,
The LondonFashion book

98 S/S컬렉션은 런던 템즈강 근처의 폐기물 처리장을 쇼 장소로 선택하고 무대는 긴 일자형으로 투명한 방풍유리로 만들어졌다. 관객은 그 양옆으로 자리했다¹⁸⁾. 쇼 시작은 번쩍이는 조명과 갑작스

런 굉음으로 천등과 번개를 연출하였고 강렬한 비트의 테크노 음악이 쇼 장을 가득 메운다. 투명한 무대 속의 푸르스름한 조명과 환상적 무드는 정돈된 모델들의 캣워크와 테크노음악에 잘 어울렸다. 의상은 섹시하고 남성의 여성 착장 경향이 두드러졌다. 콜렉션 중에 갑자기 음악이 끊기더니 무대는 일순간 적막감에 휩싸였고 바로 노란 조명으로 바뀌더니 천장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천장에 스프링 쿨러를 장치하여 인공으로 비를 내리게 한 것이다. 실내공간의 외부적 환경으로의 전환과 실내에서도 인공적인 기상환경을 연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모델들은 비를 맞으며 유유히 무대 위를 걸었고<사진2> 헤어스타일도 메이컵도 의상도 비에 젖어들어 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고 관객들의 탄성은 감동 그 자체였다

99 S/S 컬렉션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즉흥적이며 단일성을 띤 퍼포먼스로서의 요소가 충분한 쇼였다. 넓은 창고의 무대 마루바닥 위에는 로봇이 설치되었고 모델들의 바비 인형 같은 서툰 캣워크는 오히려 뮤직박스 테마에 잘 어울렸다. 다른 모델과 같이 등장한 미국 장애인 모델 에이미 멀린스¹⁹⁾, 그녀의 자태는 아름답고 우아하여 관객들은 장애사실을 몰랐다. 획기적인 모델기용이 관객을 열광시켰고 매퀸은 그녀를 통해 미의 경계를 허물었다.



<사진 3> Alexaxnder McQueen, 99s/s London Collecion
Vogue Korea, 별책부록 1998/12

피날레에서 흰 드레스를 입은 모델이 한 지점에 꼼짝 않고 서 있었고 회전무대는 돌아가고 무대 위

에 세워 두었던 로봇²⁰⁾이 그녀를 향해 형광포인트를 방사했다<사진3>.

모델은 즉흥적으로 묘사된 단 하나의 의상을 입은 채 무대 뒤로 사라졌다. 이 패턴은 더 이상 동일한 것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유일성을 가지며 즉석에서 패턴이 만들어지는 즉흥성을 설명한다. 관객은 환호하고 한편의 퍼포먼스를 즐기는 관객참여의 장을 마련하였다. 매켄은 이번 쇼가 기능보다는 장식, 그리고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²¹⁾. 패션은 착용해야 하며 그 착용한 모습이 미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뒤로하고 패션을 시각예술의 흐름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새롭다.

2000s/s 컬렉션은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쇼는 맨해튼의 서쪽 허드슨 강가 방과제에서 허리케인에도 불구하고 밤9시에 시작되었다. 쇼가 시작되기 전부터 매켄의 뽀샤시 않은 쇼를 기대하고 있었고 언론에서는 '허드슨 상륙작전', '매켄의 뉴욕공습', '매켄 브라이언파크에 유니온 잭기를 꽂다' 등으로 주목하였다²²⁾. 모델들은 화려한 의상을 입고 알은 풀로 된 무대를 걸어나왔다. 과연 매켄다운 발상이고 관객들은 드라마틱한 장면을 보고 즐긴다. 배경음악은 터키의 민속음악에서 영감을 받아 아라비안 나이트같이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다고 한다²³⁾. 피날레는 알은 풀을 뚫고 튀어나온 대못들의 아찔한 광경을 배경으로<사진4> 검은 차도르 차림의 모델들이 줄에 매달려 서커스 적인 패션쇼를 보여주었다.



<그림 4> Alexander McQueen, 2000s/s Collections III, 1999

주로 원색이 사용된 도발적이고 야성적인 의상은 관능적이었고 Showpiece로 불리는 마스크와 몸체로 이어지는 구조물 들은 종교적, 사회적, 주술적인 이미지를 지녔으며 포르노 그래피를 연상하게 하였다²⁴⁾. 모델이 패션쇼의 극적 연출로 공중에서 퍼포밍하는 장면은 계획성과 일회성이 가미된 패션과 서커스가 만난 퍼포먼스였다. 더욱이 매켄은 피날레에서 갑자기 바지를 내리고 성조기패턴의 트렁크를 선보여 자신의 즉흥적인 대응으로 계획에 없었던 해프닝을 연출하였다. 서커스 같은 공연과 패션쇼를 접목시킨 것은 착용이라는 기본적인 의미 외에 감상할 수도 있다는 패션의 시각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3. 후세인 살라얀 컬렉션

패션계에 가장 매력적인 이벤트로 알려진 후세인 살라얀의 마술과 같은 쇼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영국패션상의 최고상인 올해의 디자이너 상을 수상한 바 있고 93년 세인트 마틴 예술학교를 졸업하고 94년에 자신의 레벨을 선보였다²⁵⁾.



<사진 5> Hussein Chalayan, 99s/s London Collection
Vogue Korea 별책부록, 1998/12

99 S/S 컬렉션은 런던의 이스트엔드에 있는 이틀란티스 아트 스페이스에서 지오토포픽스(Geotropics:

굴지성)라는 주제로 열렸다²⁶⁾. 무대는 흰색으로 지적이고 차가운 미니멀리즘을 취했다. 기존의 패션쇼에서 들려지던 하우스뮤직과는 다르게 흰색으로 감싼 합창단이 라이브로 연주한 배경음악이 돋보인 한편의 퍼포먼스였다<사진5>. 음악과 패션쇼 각각의 특성이 드러난 총체예술로서 설명된다.

2000 S/S 컬렉션은 무대와 벽이 무 장식의 흰색으로 처리된 발레극장에서 열렸다. 한 남자가 나와 흰 벽을 가르자 피아노 건반이 보이고 배경음악은 피아노 라이브 연주였다. 미동도 없이 걷는 절제된 캣워크는 조형적인 심플한 무대와 피아노 소리와 잘 어울렸다. 모델은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마네킨과도 같았다. 흰색의 의상들은 아방가르드한 디테일을 포인트로 웨어러블 하고 여성적인 실루엣을 선보였다. 한 남자가 스커트를 공기 파이프를 연결하고 불륨을 높이자 스커트 단은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고 바디모양으로 조립된 흰색드레스를 입은 모델이 등장하자 어린 소년이 리모트 콘트롤을 조절하자 드레스는 서서히 해체되면서 날개처럼 퍼졌다. 패션에 첨단 테크놀로지를 도입하여 움직임을 시도한 미래적인 패션 퍼포먼스로 관객들의 환호는 그칠 줄 몰랐다. 피날레는 5명의 모델이 무대자체의 움직임으로 인해 아래로 서서히 사라져 갔다.

2000 F/W 컬렉션, 새들러스 웰스 극장에²⁷⁾ 마련

된 무대는 한편의 연극무대처럼 평범한 거실로 꾸며졌다. 흰색의 깔끔한 벽에 그림이 걸려있고 TV,



<사진 6> Hussein Chalayan, 2000f/w Collections II, 2000

꽃병, 나무원탁과 네 개의 의자가 놓여져 있었다. 무대의 오브제로 인식할 뿐 그 용도를 알지 못했다. 터키 민속음악이 라이브로 연주되어 흐르고 4명의 모델들은 슬립드레스 차림으로 각자 의자 옆으로 가 의자 커버를 벗겨 입기 시작하였다. 회색체크 의

<표 1> 디자이너별 패션쇼 분석

디자이너 분류	존 갈리아노	알렉산더 매컨	후세인 살라얀
패션쇼 장 소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호텔, 박물관, 살롱, 매종 등에서부터 버려진 창고, 공장의 빈터 등.	특이한 장소 선정으로 유명. 성당, 창고, 폐기물 처리장, 선착장, 강당, 실내 스케이트장 등	창고, 극장, 아트 스페이스 등
연 출	자유로운 상상력과 유머가 동원된 연극 같은 무대장치와 모델들의 캣워크	인공 기상환경 연출 드라마틱하고 그로테스크한 분위기	정적이고 절제된 캣워크와 배경음악의 라이브 연주가 돋보임
의 상	로맨틱하고 섹시한 분위기. 칼라풀하고 디테일한 화려한 의상. 토탈 코디네이션 추구	구축적인 구성과 도발적이고 관능적인 포르노 그래픽 의상. 직선적 커팅과 파격적인 노출	미니멀리즘적인 아방가르드 스타일, 조형적이면서 웨어러블한 여성적인 실루엣
의 의	쇼의 과정이 퍼포먼스적이며 연극과 같은 극화쇼	패션쇼에 타장르를 접목시켜 패션의 시각화 시도. 인간과 기계와의 관계에 대한 미학	첨단 테크놀로지를 패션쇼에 도입하여 패션과 기술과의 경계 와해. 배경음악의 확장

자커버는 즉석에서 멋진 드레스가 되어 모델들에게 입혀졌고 남아 있는 나무의자는 몇 번의 조작으로 여행용 가방으로 둔갑해 버린 모험적이고 유머러스한 쇼가 되었다. 기존의 정형화된 사고로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들이 실연된 퍼포먼스로서 시종일관 침묵 속의 불꽃같은 디스플레이이다. 관객들의 환호성에 한 명의 모델이 남아있는 원탁의 안쪽에 뚜껑을 열고 들어가 손잡이를 올리니 원 탁 모양의 층계식 스커트가 되었다(사진6). 이번 쇼는 패션과 인테리어의 경계를 허문 기능적이고도 웨어러블한 의상의 정수를 보여줬다.

다음은 위의 분석을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V. 결 론

90년대 들어 타 장르와의 접목을 통해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관객이 즐기고 참여하는 패션쇼는 총체예술로서 퍼포먼스 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형식적이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탈피 하고픈 현대인들의 자연스런 현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199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적 사고의 변환으로 공간개념이 확장되면서 제3의 장소가 패션쇼장소로 부각되어 신성한 교회, 버려진 공장이나 빈터, 지하철역사, 가설텐트, 선착장, 폐기물 처리장, 스케이트장 등은 친근감을 느끼고 현장성을 나타내며 관객참여의 장으로 인식하게 한다.

둘째, 무대장치는 전형적인 T자형에서 프로시니엄 아치를 제거해 관객과 무대의 이분법적인 경계를 허물고 생활의 일부를 무대에 옮겨 일상과의 간격을 좁혔으며 연극적 장르를 접목하였다. 첨단 테크놀로지에 의한 무대의 자동화(회전, 해체), 로봇이라는 기계와 인간의 관계에서 얻어진 패턴은 즉흥성과 일회성을, 스프링 클러를 이용한 기상환경은 치밀한 계획성으로 설명되어진다.

셋째, 패션쇼의 중요한 요소인 배경음악은 관객을 하나로 이끄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하우스 음악이나, 패셔너블한 클럽 음악에서 강렬한 테크노 음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추구하며 실험적이고

추상적인 목소리를 배경으로 함은 보다 진보적이며 관현악, 민속음악, 합창단, 피아노, 대중뮤지션들의 라이브연주가 음악적 특성을 잃지 않고 쇼를 생동감 있게 하고 관객참여와 즉흥성을 설명한다.

넷째, 캣워크 자체가 이미 퍼포먼스이며 모델들은 제스처, 표정연기, 댄싱, 극적 요소 등을 소화해야 하는 만능 탤런트화 경향이 보인다. 관객의 즉각적인 반응과 모델들의 즉흥적인 대응은 퍼포먼스의 특성인 즉흥성을 실연하는 것이다. 모델개념 또한 확장되어 대중 스타, 일반인, 장애인, 노령자, 혹은 모델 등의 기용은 미적 경계를 허물고 유머와 관객참여를 유도한다.

이상에서 존 갈리아노는 패션쇼에 연극적 요소를 도입하고 알렉산더 매퀸은 독특한 장소 선정과 패션을 시각예술로 접근하며 후세인 살라얀은 첨단 테크놀로지를 도입한 미래적이고 마술적인 쇼로 특징 지을 수 있다. 그리고 현대패션쇼의 유형은 기존의 쇼 형식을 탈피한 관객참여, 즉흥성, 현장성, 계획성, 일회성 등 퍼포먼스 적 실연형식으로 타 장르의 특성이 유기적인 결합으로 존재하는 총체예술로서 대중화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패션쇼의 한계를 넓히고 질적 향상을 가져왔으며 세계 패션계로 진일보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한정미, "국내패션쇼에 관한 실태분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p.3.
- 2) 패션큰사전 편찬위원회, 「패션큰사전」, 교문사, 1999, p.572.
- 3) 이부연, 안병기, 「현대와 패션」, 형설출판사, 1996, p.50.
- 4) 이부연, 안병기, 윗 글, p.50.
- 5) 윤진섭, "퍼포먼스에 있어서 미적 체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p.10.
- 6) 윤진섭, 「행위예술 감상법」, 대원사, 1995, p.26.
- 7) 윤진섭, 윗 글, p.26.
- 8) 한정미, 앞 글, p.3.
- 9) Mary Ellen Diehl, How to Produce a Fashion Show, NewYork: Fairchild Publication, 1976, p.1.
- 10) 명영화, "패션쇼에 관한 연구 -무대 세트 디자인을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pp.8~9.

- 11) Mary Ellen Diehl, 앞 글, pp.11~12.
- 12) 이지희, "정보원으로서의 패션쇼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p.8.
- 13) Mary Ellen Diehl, 앞 글, pp.21~26.
- 14) 윤진섭, 앞 글, 1995, p.8.
- 15) 김홍희, 「Happening, Video, Art Namjun Paik」, 디자인하우스, 1999, p.18.
- 16) Andrew Tucker, The London Fashion Book, London: Thames and Hudson Ltd, 1998, p.43.
- 17) 이명희, '그 무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Vogue Korea」, 1997.1, p.105.
- 18) 조명숙, '패션쇼와 퍼포먼스', 「Vogue Korea」, 1998.2, p.86.
- 19) 장애인 모델로 좋아리뼈 없이 태어나 무릎 아래부분을 절단하여 의족을 착용하였다.
- 20) 「Vogue Korea」 별책부록, 1998.12, p.23. 로봇은 이태리 피아트사에서 빌려옴.
- 21) 「Vogue Korea」, 뒷 글, 1998.12, p.23.
- 22) 「Vogue Korea」 별책부록, 1999.12, p.32.
- 23) 유재부, '알렉산더 매퀸의 허드슨 상륙작전', 「Bazaar Korea」, 1999.11, p.75.
- 24) 유재부, 앞 글, 1999.11, p.75.
- 25) Rebecca lowthorpe, , 신유진(역), '후세인 살라얀', 「엘르 코리아」, 1999.10, p.259.
- 26) 전미경, '패션쇼와 퍼포먼스', 「보그 코리아」, 1998.12, p.24.
- 27) 「보그 코리아」 별책부록, 2000.4.
 - 김수남, 「총체예술의 이해」, 예니, 1996.
 - 디디에 그롬바크, 「패션의 역사」, 우종길(역), 도서출판 창, 1994.
 - 로버트 린튼, 「20c미술」, 윤난지(역), 도서출판 예경, 1993.
 - 로즈리 골드버그, 「행위예술」, 심우성(역), 동문선, 1989.
 - 루시 스미드, 「1945년 이후 현대미술의 흐름」, 김춘일(역), 미진사, 1985.
 - _____, 「해프닝」, 전경희(역), 열화당, 1993.
 - 르네 블록, 「플럭서스」, 전경희(역), 열화당, 1993.
 - 야마구치 가쓰히로, 「로봇 아방가르드 20세기 예술과 테크놀로지」, 김승희(역), 지성의 샘, 1995.
 - 윤진섭, 「현대미술의 쟁점과 현장 윤진섭의 포스트모더니즘 엮보기」, 미진사, 1997.
 - 이금희, "퍼포먼스의 예술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이영주, "새로운 조형언어로서의 행위예술에 관한 연구", 성심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이종실, "설치미술의 전개와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Video Tape, 1990년 이후 파리. 런던 컬렉션(프레타 포르테)의 존 갈리아노, 알렉산더 매퀸, 후세인 살라얀.